



산업 Issue

2026년 7월 21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같은 문제, 다른 해결책(뉴욕과 PJM)

중간선거 중요 안건이 될 데이터센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0MW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최대 1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데이터센터 크기 중간값이 175MW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뉴욕주의 데이터센터는 약 134개로 버지니아주(639개)와 텍사스주(506개) 대비 현저히 적은 편이며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도 텍사스와 버지니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번 뉴욕주 행정명령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11월 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경합지에 데이터센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중요한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를 '미래 일자리의 원동력'으로 표현하며 호컬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PJM 2028/29 용량경매는 \$325/MW-day (YoY -3%)

같은 날 발표된 PJM의 2028/29 ('28년 6월~'29년 5월) 용량경매(BRA) 가격은 \$325.00/MW-day (YoY -3%)였다. FERC가 이미 4월 28일에 이번 2028/29 용량경매에 대한 상한선(\$325)과 하한선(\$175)을 발표했으며 상하한선 제도가 도입되었던 2026/27 경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낙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가격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다만 여전히 절대적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상한이 없는 시뮬레이션상 가격은 \$554.72/MW-day로 실제 낙찰가 대비 약 70% 높다. 게다가 예비력 부족 규모가 6.8GW로 지난 경매 6.5GW 대비 확대되며 2년 연속 예비율 20% 도달에 실패했다. 신규 공급은 증설을 포함해 525MW에 그친 반면 예측 수요는 2GW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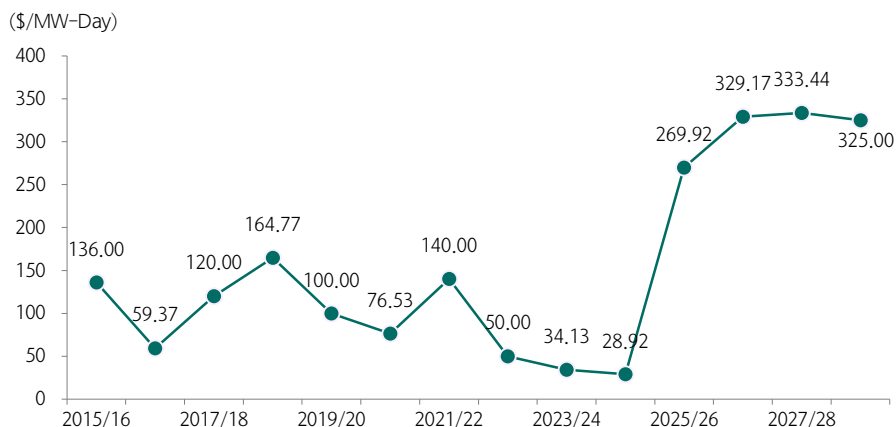
규제적 예방(뉴욕) vs 사후적 시장 메커니즘(PJM)

데이터센터발 전력 요금 상승 우려라는 같은 문제에 대해 뉴욕주는 신규 허가를 멈추고 규제부터 만드는 방식을 택한 반면 PJM은 Connect and Manage 방식(일단 연결하되 위기 시 신규 데이터센터부터 차단)을 채택하며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같은 다른 주에서는 데이터센터 세제혜택을 축소했다. 메인주에서도 뉴욕과 비슷한 모라토리엄을 추진했던 바 있으나 최종 서명 단계에서 거부된 점, 데이터센터 최대 유치 주에서 모라토리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뉴욕과 같이 극단적인 전면 금지가 표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인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1) 무조건적 유치가 아닌 조건부 유치, 2) 조건의 핵심은 자체 인프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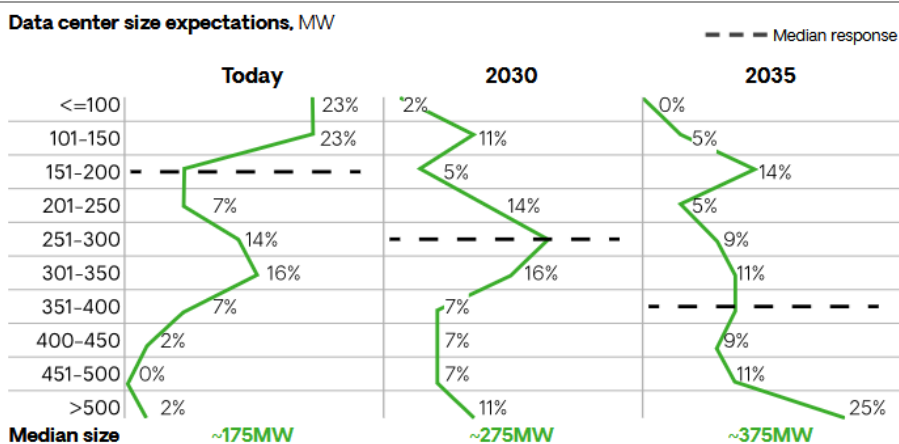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도표 1. PJM BRA 가격 추이



자료: PJM, 하나증권

도표 2. 데이터센터 크기 전망



자료: 블룸에너지,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주별 데이터센터 개수

순위	주	Data Centers
1	Virginia	639
2	Texas	506
3	California	292
4	Illinois	239
5	Ohio	237
6	Georgia	229
7	Arizona	160
8	Pennsylvania	145
9	New York	134
10	Oregon	126
11	Indiana	123
12	Iowa	116
13	Florida	110
14	Washington	107
15	North Carolina	95
16	Missouri	92
17	Minnesota	78
18	Michigan	77
19	Nevada	74
20	New Jersey	67
21	Tennessee	63
22	Colorado	57
23	Maryland	53
24	Wisconsin	53
25	Connecticut	52
26	Kentucky	49
27	Utah	48
28	Oklahoma	47
29	South Carolina	46
30	Alabama	43
31	Massachusetts	42
32	Nebraska	37
33	Kansas	37
34	Wyoming	31
35	Montana	30
36	Idaho	25
37	Mississippi	24
38	North Dakota	23
39	Louisiana	23
40	New Mexico	22
41	Delaware	18
42	Arkansas	12
43	Maine	11
44	West Virginia	10
45	South Dakota	10
46	New Hampshire	10
47	Hawaii	9
48	Alaska	8
49	Rhode Island	7
50	District of Columbia	6
51	Vermont	3
합계		4,555

자료: 하나증권, datacentermap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시현)는 2026년 7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